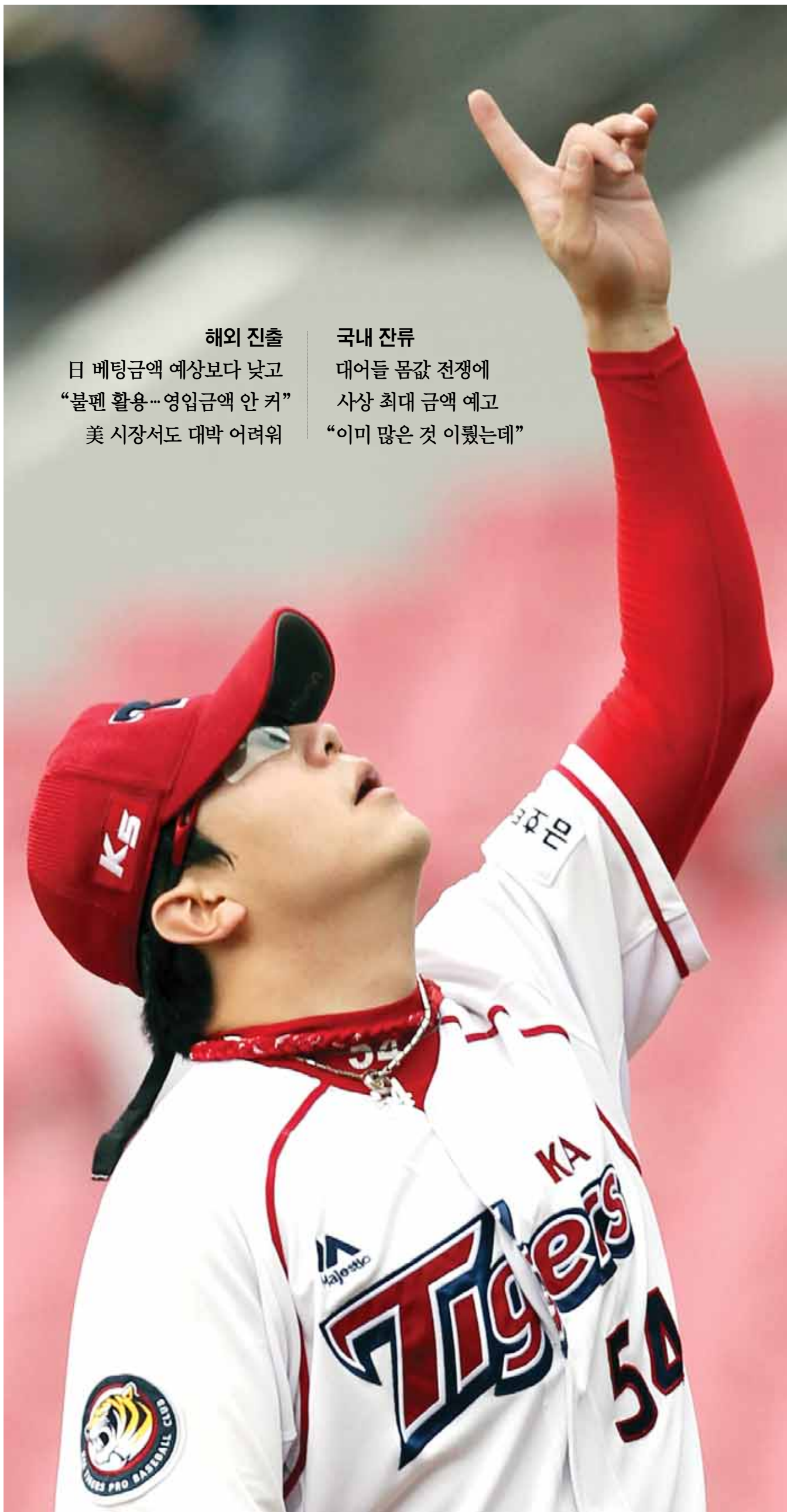


꿈이나 현실이나 ‘양’손의 떡



해외 진출
日 베팅금액 예상보다 낮고
“불편 활용...영입금액 안 커”
美 시장서도 대박 어려워

국내 잔류
대어들 몸값 전쟁에
사상 최대 금액 예고
“이미 많은 것 이뤘는데”

FA 양현종의 선택은?

‘꿈과 현실’ 양현종의 선택은?
11일 프로야구 FA(자유계약) 시장이 개막한다. 이번 스토브리그는 좌투수·좌타자들이 판을 주도할 전망이다. 양현종·김광현·차우찬 등 좌완 트리오와 좌타거포 최형우가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KIA 팬들의 관심은 역시 양현종에 쏠린다. 팬들의 바람과 달리 양현종의 거취는 뒤늦게 확정될 전망이다. ‘해외진출’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현종의 두 번째 도전이다. 양현종은 지난 2014년 시즌이 끝난 뒤 KIA구단으로부터 포스팅 자격을 얻어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했었다. 하지만 기대 이하의 이적료가 나오자 구단은 최종적으로 양현종의 포스팅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존심’을 이유로 들어 포스팅을 불허한 구단은 팀 역대 최고 연봉인상액으로 자존심을 세워줬지만 해외 진출 의사가 강했던 양현종은 포스팅 불발에 많은 아쉬움을 표했다.

2년이 지난 이번에는 FA 신분이 됐기 때문에 양현종은 이적료 고민을 빼고 큰 무대에서 가치를 평가받고, 본인 의사대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칼자루를 양현종이 쥐고 있다. ‘꿈과 현실’을 놓고 양현종의 선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계약 조건이 양현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을 앞두고 양현종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구단들의 이름과 준비 금액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었다.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도 경기장을 찾아 양현종의 등판을 꼼꼼히 살펴봤다. 그러나 외부기류가 양현종에게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개막전과 달리 시즌이 끝난 뒤 일본에서 흘러나오는 양현종에 대한 베팅 금액이 초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도 대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한 스카우트는 시즌 중반 “양현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들이 있다. 우리 팀도 양현종에 관심이 있는데 불편 자원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양현종의 꿈이다. 일본에서 많은 금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팀은 현실적으로 양현종을 불편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영입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단이 양현종이 꿈을 좇아 빅리그를 생각할지 현실을 선택할 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변수 많은 해외 무대와 달리 국내 FA시장은 대어들의 몸값 전쟁과 함께 사상 최대 금액이 예고된다. 다른 대어들의 시즌도 해외로 향하고 있는 만큼 해외진출을 타진 한 뒤에 국내로 눈을 돌려도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현실은 국내 잔류지만 양현종은 국내 무대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이뤘다. 프로 선수에게 큰 무대로의 진출은 영광스러운 도전이자 꿈이다. 해외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던 만큼 꿈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양현종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될 뜨거운 스토브리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감독 권한 줄어드는 김성근

“코치 좀 일른 뽑아 줘요”

김성근(74·사진) 한화 이글스 1군 감독의 권한이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다. 한화는 최근 박종훈(57) 신임 단장을 영입하고, 박정규(52) 전 단장을 사임총괄본부장으로 옮기게 했다. 사실상 단장이 2명인 구단이다.

박종훈 단장은 육성 등 선수단 관리를, 박정규 본부장은 인프라 구축 등을 전담하는 구조다. 기존 단장의 역할을 나누기보다는 감독의 주도하던 일을 프런트의 영역으로 끌어들었다. 그리고 지난 3일 보도자료에 ‘김성근 감독에게는 1군 감독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때부터 김 감독의 ‘권한 축소’가 예견됐지만, 구단도 김성근 감독 본인도 ‘어디까지가 감독의 영역이고, 어디부터 구단이 주도할 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코치 선임에도 문제가 생겼다. 김재현 타격코치와 소다 고조 타격코치, 바바 도시후미 주루코치, 오키 야스시 배터리코치가 팀을 떠났고 김성근 감독은 10월부터 새 코치 영입에 힘썼다. 구단도 “감독이 코치를 추천하면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감독은 최근 일본인 코치에 영입 의사를 구단에 전했다. 해당 코치는 일본 독립리그팀과 감독 계약을 포기하고 한화에 입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코치는 12월 한화에 마무리 훈련을 하는 일본 미야자키로 넘어올 계획이다. 그런데 김 감독이 구단에 계약 진행을 요청



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다.

김 감독은 “코치진 구성은 빠른수록 좋은데,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며 “코치가 팀에 합류하기 전에

계약을 마치는 게 일반적인데, 계약도 하지 않은 코치에게 일을 먼저 시키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한화는 김 감독에게 코칭스태프 구성 대부분을 맡겼다. 다른 구단도 코치진 구성은 감독의 영역으로 본다. 하지만 2016년 가을, 한화에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사실 1·2군을 가리지 않고 선수단을 관리하던 김성근 감독에게 ‘1군 감독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한다’고 외부에 알려진 것도, 사령탑의 힘을 잃게 하는 요인이었다.

일단 김 감독은 한발 물러나 “1·2군을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2군 코칭스태프에 “직접 훈련 계획을 짜보라”고 했다. 그러나 ‘1군 감독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라는 구단의 방침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박종훈 신임 단장과 김성근 감독이 만난 뒤에야 경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구단 업무 파악에 집중하던 박 단장은 11월 미야자키로 건너간다. 박 단장은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다. 김성근 감독은 “환안이 많다. 빨리 박 단장과 만났으면 한다”고 바랐다.

/연합뉴스

ML 재도전 황재균 플로리다서 쇼케이스

메이저리그 재도전에 나선 황재균(29)이 미국 현지에서 쇼케이스를 연다.

미국 ‘MLB네트워크’는 9일(이하 한국시간) 황재균이 22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관심 있는 팀들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한다고 전했다. 황재균은 메이저리그 재도전에 무게를 두고 지난달 24일 플로리다로 출국해 개인 훈련 중이다.

황재균은 지난해에도 포스팅(비공개 경쟁 입찰) 시스템을 통해 빅리그의 문을 두드렸지만, 어느 팀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못해 무응찰의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적료 개념의 포스팅 금액이 뒤따르는 걸림돌이 있었지만, 올해는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라 큰 제약이 없다.

황재균은 타격폼을 간결하게 만드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올해 타율

(0.335)과 출루율(0.394)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27개)을 쏘아 올리면서도 삼진율은 지난해 20.5%에서 올해에는 11.8%까지 떨어뜨렸다.

지난해보다 기량이 일취월장한 황재균에게 올해 메이저리그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피츠버그 파이리츠, 볼티모어 오리올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콜로라도 로키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 7개 구단이 황재균의 기량을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균은 오는 22일 자신의 야구 인생의 갈림길이 될 시험대에 오른다. 쇼케이스 결과에 따라 메이저리그 입성 여부는 물론 미국 체류 기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포지 첫 ML 황금장갑...물리나 9년 연속 수상 저지

버스터 포지(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아디에르 물리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제치고 생애 처음으로 황금장갑을 손에 넣었다.

현역 감독과 코치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메이저리그 포지선별 골드글러브 수상자가 9일 발표했다. 내셔널리그 포수 부문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포지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독식한 물리나의 9년 연속 수상을 저지했다.

포지를 포함해 처음 수상한 선수는 9

명이나 된다. 108년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공헌한 시카고 컵스 1루수 앤서니 리조와 샌프란시스코 2루수 조 패니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중견수 앤디 이튼이 아예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1루수 미치 모어랜드(텍사스 레인저스), 2루수 이안 킨슬러(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유격수 프랜시스코 린도어(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좌익수 브렛 가드너(뉴욕 양키스), 우익수 무키 베츠(보스턴 레드삭스)가 첫 황금장갑을 품었다.

/연합뉴스

NC 김경문 감독 재계약...3년 총 20억

NC 다이노스가 김경문 감독과 재계약했다.

NC는 9일 김 감독과 2019년까지 3년간 총액 20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독은 “2011년 이래 창단과 성장을 함께 한 팀”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 다이노스 팬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NC는 “김경문 감독이 지난 5년간 신



생팀을 상위권으로 이끈 점을 높이 평가한다. 신규세대의 조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 김 감독을 재선임했다”고 재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NC 선수단은 오는 14일 마산구장에서 마무리훈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테니스 전설’ 한국서 샷 대결

11일부터 남자프로테니스 챔피언스투어

존 매켄로·피트 샘프러스·이형택 등 참여

행된다.

은퇴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ATP 챔피언스투어는 현역 시절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거나,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 진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에서 우승한 팀에서 단식 경기에 출전한 경력을 갖춘 선수들만 출전하는 무대다.

그 가운데서도 매켄로와 샘프러스는

‘흥행 카드’로 주목받는 선수들이다.

현역 시절 ‘코트의 악동’으로 유명했던 매켄로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7차례 정상에 올랐다. 1992년 앤드리 애거시와 시범 경기 이후 24년 만에 국내 팬들 앞에 모습을 보인다. 샘프러스는 1990년 US오픈을 비롯해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14번 우승한 선수로 2007년 로저 페더러와 시범 경기 이후 9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연합뉴스

존 매켄로(57), 피트 샘프러스(45·이상 미국) 등 ‘테니스 전설’들이 오랜만에 한국 팬들 앞에서 샷 대결을 벌인다.

매켄로와 샘프러스, 마라트 사핀(36·러시아), 패트 캐시(51·호주) 등 네 명의 은퇴 선수들이 출전하는 남자프로테니스(ATP) 챔피언스투어 기아 챔피언스컵이 11일부터 서울간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다.

11일 오후에는 매켄로와 사핀이 한 조를 이루고 ‘한국 테니스의 전설’인 유진선(54), 이형택(40)이 호흡을 맞춘 복식 시범 경기가 먼저 열린다. 12일에는 샘프러스와 사핀, 매켄로와 캐시의 예선 경기가 낮 12시30분부터 열리고 13일에는 같은 시간부터 3,4위전과 결승전이 차례로 진